

앞서가는 충남여성의 길잡이

# 충남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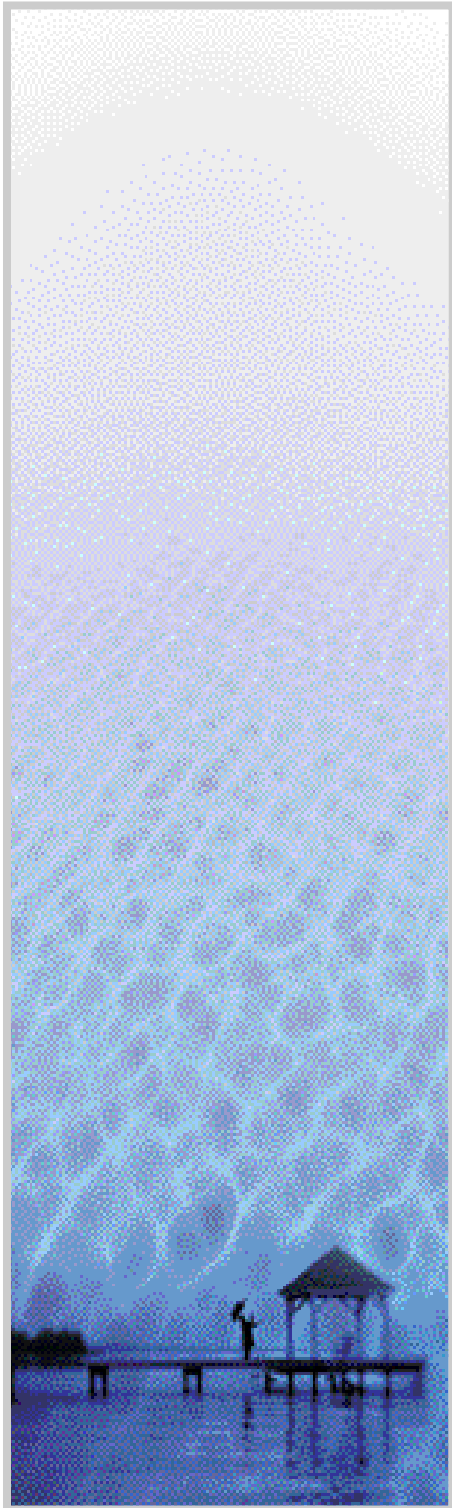
2004 여름 통권 제19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 CONTENTS

- 02** 1. 가정의 달 특집  
\_ 평등가족을 위한 지원방안 / 이진숙
- 05** 2. 기획탐방  
\_ 충청남도생활개선회를 찾아서... / 김진홍
- 07** 3. 논단  
\_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과제 / 김순미
- 12** 4. 정책제안  
\_ 충남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이영세, 김영주
- 16** 5. 지역문화 찾기  
\_ 천안에 위치한 국보급 국가지정 문화재
- 18** 6. 함께하는 생각  
\_ 햇살같은 아이들 / 전혜경  
\_ 나의 여름 / 진명희  
\_ 자원봉사활동의 소회 / 정희자  
\_ 첨단기술의 집약체 고속열차(KTX) / 한병래  
\_ 비어 있는 길 / 김난주
- 25** 7. 주부모니터통신  
\_ 아산시 주부모니터 이충경
- 26** 8. 알림  
\_ 본원소식 / 도소식 / 여성계소식
- 40** 9. 교육후기  
\_ 양성평등과정의 다정했던 얼굴들을 떠올리며... / 이영세
- 42** 10. 충남여성포럼  
\_ 제11회 충남여성포럼
- 43** 11. 알아봅시다  
\_ 담화문 / 심대평
- 44** 12. 함께하는 이야기  
\_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승진
- 46** 13. 개원이후 사업실적



## 평등가족을 위한 지원방안



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1. 변화하는 가족

농경사회가 정착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국가가 한 가족을 대표하는 인물인 아버지에게 가부장권을 부여하고, 가족의 통치라는 국가의 의무를 아버지에게 위임시킴으로써 형성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는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이 내재되어 있다.<sup>1)</sup> 그 결과 가부장적 가족은 사랑과 애정에 기반을 둔 집단이라기보다는 권력구조로 이루어진 비민주적인 위계집단에 다름아니다. 가정은 가부장인 아버지에게는 안식과 휴양처가 되지만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구조가 재현되는 비민주적 공간으로 전락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 가정은 불평등과 폭력 그리고 방임과 유기가 자행되는 공간이지만 국가는 이를 사적인 영역으로 규정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떠 넘겨 왔다.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가족은 구조적 변화

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가족은 그 구조상 전통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가족에 대한 가치와 성역할이 변화하고 개인의 인권이 신장되면서 현대가족은 근대적 가족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가족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사회적인 가족지원정책에 대해 모색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 2. 평등가족의 모습

그렇다면 '가족'이란 무엇이고, '평등'한 가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가족은 여러 구성원들이 하나로 모여 이루어진 전체적 단위이기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은 한 사람만이 행복감을 느낌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가 똑같이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 가능해진다. 특정인의 희생, 특정인에 대한 폭력과 억압에 기초한 가족이라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정한 형태만을 가족으로 보고 국가가 그와는 다른 유형의 가족을 차별한다면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부당한 처사이며, 형평성과 사회통합의 원칙에서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이해는 가족구성원들의 평등과 자

1) 이득재,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서울: 소나무, 2001.



유를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성인지적인 시각에 기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혈연에 기초한 가족만을 ‘합법적 정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문화적 관행과, 정형적 형태에서 벗어난 가족에 대해서는 문제가족으로 낙인을 찍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형태에 상관없이 구성원들 간에 애정과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통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에 대해 평가할 때 가족의 형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족의 기능이 얼마나 ‘건강하게’ 수행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곧 가족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3. 평등가족을 위한 지원방안

가족구성원들이 성과 세대를 뛰어 넘어 평등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애정어린 노력과 유대가 요구되지만 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사회적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만하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지원방안 중 가장 시급한 세 가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sup>2)</sup>

####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오늘날 독신가구, 한부모가족, 이혼가족과 재혼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러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개인들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가족이 혈연에 기초한 전통적 핵가족으로 편협하게 이해됨으로써 다양한 가족은 비정상적 문제가족으로 치부되어 왔고, 가족 내에서는 여성, 아동 또는 노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제는 현실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다. 더불어 가족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수직적 위계질서가 아닌 평등하고 민주주의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제도에서의 가족에 대한 수용범위를 넓히는 행위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정책의 대상에 다양한 가족을 골고루 수용하는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은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상관없이 가족구성원 간에 평등과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 2) 가족관련법제의 정비

제도적 측면에서 가족의 생활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기제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관련법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부장적 이념에 기초하여 구성된 원리들이 잔재해 있어서 다양한 가족의 실태를 정책에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세대와 성간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장애로

2) 김영화/이진숙/이옥희(2002):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법상의 호주제 존치의 문제, 영유아보육법상의 불합리한 양육 책임규정, 모성보호법의 미비 등 법에 있어 여성차별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부부간에 권력이 올바르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며, 사회내에서도 여성의 차별을 유발하는 주요동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가족관련법제는 성인지적인 시각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족내 약자에 대해 억압하고 특정한 형태의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차별하는 현재의 가부장적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가족들에게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관점이 법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 3)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현대 사회에서 직업노동은 개인이 경제적 생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단순한 도구의 의미를 뛰어 넘은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된다. 직업은 개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내면의 욕구들을 분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의미하며 직업을 통해 사회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물이 된다. 이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기혼여성이 취업과 가족생활을 병행한다는 것은 사회의 불합리한 통념으로 인해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고정관념은 여성들을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그리고 노약자에 대한 보호노동(caring work)의 담당자로 규정하고 있어 실령 여성들이 취업중이라 하더라도 두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여성들에게 부과되어 취업여성들은 남성과는 달리 직장과 가족의 틈바구니에서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출산율 저하와 가족내 갈등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보호노동의 사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제도의 의미가 커지고 있다.

모성보호는 지금까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모성보호를 남녀근로자 모두가 해당이 되는 '사회적 모성보호'로 확대하여 자녀양육과 보호노동의 책임이 특정한 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성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보호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평등가족과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전제는 무엇보다도 가족 내에서의 평등실현이 그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은 바로 사회의 기틀이기 때문이다. 충남 여성





## 충청남도생활개선회를 찾아서...

\_ 연구팀 김진홍

**충**청남도생활개선회(회장 김용남)는 농촌여성지도자로서 건전한 농촌가정을 육성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농촌지역사회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여성단체이다.

1958년 생활개선구락부로 시작한 이래 1977년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부로 활동하였고, 1994년 10월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4년도 사업목표를 농촌여성지도자로서 농가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과학적인 생활기술을 익혀 농촌여성의 지위향상과 농촌여성후계세대를 육성함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 충남도내 16개 시·군 및 각 읍·면·동에 1만6천6백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생**활개선회는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농작업 환경개선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 영농기술 습득 등 농촌 경영능력신장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금**년도에는 여성농업전문인으로서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 농촌여성소득 활동 적극 참여 및 합리적인 소비실천, 농작업환경개선

등 생활개선과제개발 및 선도 실천, 의식개발 및 리더십 배양, 환경보전 및 전통문화 전승, 지식정보화 디지털 시대 동참 등을 주요활동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또한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해 내 고장 농특산물 알리기, 농업농촌문화 교류, 생활문화 전승, 내고향 향수 찾아주기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5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는 이웃돕기는 도시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농촌의 훈훈한 인정을 느낄 수 있는 주요행사로 사랑의 쌀모으기, 도내 복지시설방문, 청소·목욕 봉사 등 어려운 이웃돕기를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이**웃돕기와 관련하여 올해는 지난 6월 14일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소재평화의 동산을 찾아 노인들과 하루를 보내며, 이야기도 나누고 방안 청소, 주변환경 정리를 한 후 미리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다.

**생**활개선회는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농업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비료·농약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환경보존 의식을 개선해 나가는데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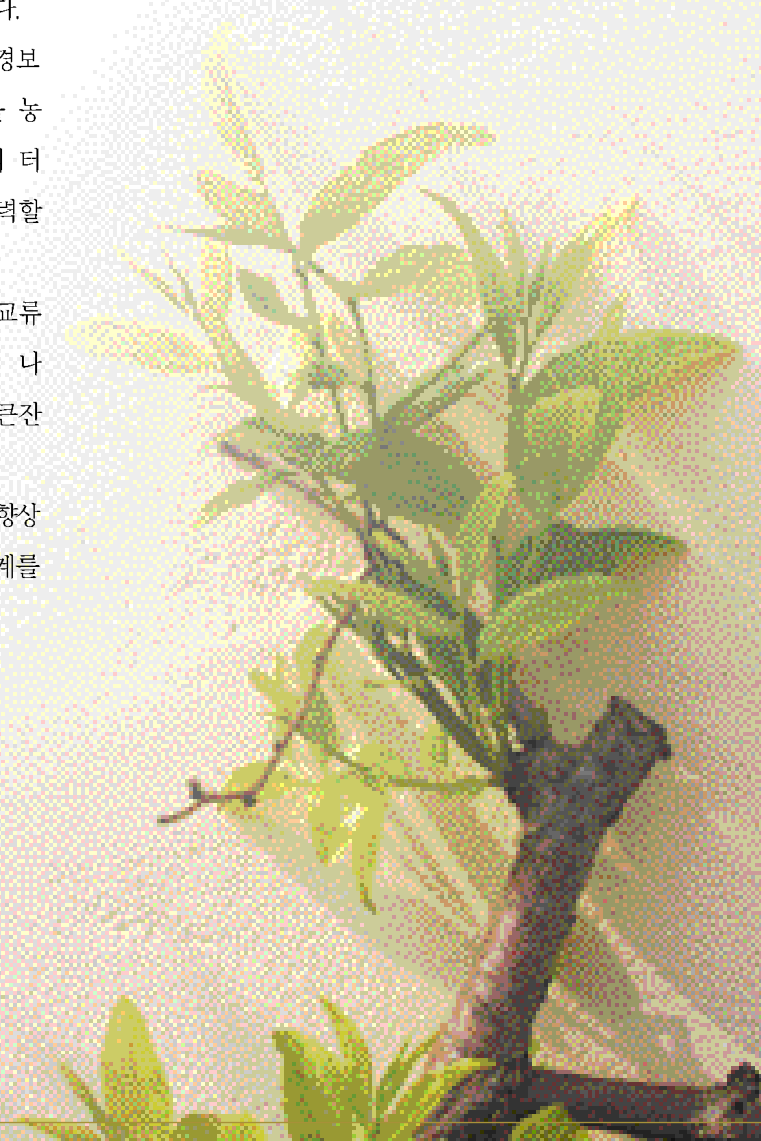
시군 지역별 140여개의 과제별 연구회를 만

들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점은 회원상호간에 능력개발이라는 면에서 돋보이는 내용이다. 연 구회를 통해 우리음식만들기, 가정원예, 농산가 공, 정보화, 생활건강, 미용 및 품물 배우기 등 의 활동을 다양하게 하면서 도생활개선회에서 는 시군단위생활개선회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 게 1인1과제 가입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충**청남도생활개선회에서는 농촌생활환경보 전, 근검절약, 농산물직거래, 봉사활동 등을 농 촌생활개선 4대 실천운동으로 정하고 삶의 터 전인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로 내고장 청결운동, 도농교류 활동 추진, 고부사랑화합대회, 칠월칠석 떡 나 뉘주기 행사, 시어머니·며느리 사랑나눔 큰잔 치 등을 기획하여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의 권익향상 을 위해 농촌조직 연합체 등과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여성**





##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과제



**김 순 미**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겪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는 가족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었고 가족형태도 다양화되는 등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심화, 초혼연령의 상승, 미혼율, 이혼율 및 재혼율의 증가, 40-50대의 조기사망, 저출산율 등과 같이 가족자체 및 가족구성원이 변화하였으며, 경기침체, 실업, 여성의 사회활동 기회 증대, 페미니즘의 확산, 사이버 시대의 도래, 주거환경의 변화 등과 같이 가족을 둘러싼 외적 환경도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가족', '총체적 위기가정'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는 가족구성원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가정은 자녀양육이나 노인부양의 문제를 가족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으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가정은 해체되거나 붕괴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와 사회의 가정보호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되면서, 국가와 사회는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치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지금까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주로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과 같은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는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정책은 가정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문제로 확대될 때에야 비로소 대책을 강구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후치료중심의 서비스지원이었으며, 그 결과 가정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탄생된 가족 및 가정관련 사회입법이며,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가정문제의 사전예방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 2003년에 제정되어 200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의 조성, 이를 위한 각종 시책, 심의 및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문제발생의 예방을 강조함으로써 사전예방적 성격이 강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정책적 변화를 꾀



## 건강가정은 개인의 행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의 기본이 된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건강가정기본법은 어떠한 체계로 구성되었는가?

건강가정기본법은 헌법의 하위법률인 동시에 기본법이다. 따라서 가정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미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사업법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며, 선언적 의미와 개발되어야 할 사업영역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도록 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총 5장 37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건강가정기본법은 총칙에 이어 본법의 실체규정으로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건강가정정책에 대한 규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기능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증진 대책, 가족공동체 문화조성을 통한 사회통합과 문화계승,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 역할분담, 가정친화적 사회환경조성,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책,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가족지원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등과 같은 건강가정관련정책의 계획과 실행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또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규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의 구현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은 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한 여러가지 조치와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건강가정사업의 내용에는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 강화,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 지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가정생활문화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건강가정교육,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가정의 전담조직에 관한 규정에는 건강가정 사업의 전담수행을 위한 공적전달체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민간단체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 건강가정에 관련된 전담부서는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정심의관, 인구·가정정책과이지만 지방의 시행주체인 시·도 및 시·군·부에 전담부서가 없어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된 제반 시책들을 전담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적전달체계의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과 같은 위한 건강가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건강가정사의 자격 및 직무사항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은 무엇인가?

**첫째,**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킨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은 개인의 행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의 기본이 된다. 물론 건강가정의 개념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다. 가정을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나누어 건강한 가정만을 보호하거나 서비스를 지원받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비건강가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의 건강성은 가정의 구조나 형태가 아닌 기능을 의미하고 소위 정상적인 가족유형의 건강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가족유형을 전제로 할 때,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가정공동체 안에서 제한되지만 가정공동체의 준칙이 궁극에는 개인의 선택과 행복으로 귀결된다. 또 가정문제 증가로 인한 가족의 갈등과 해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가정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가정의 건강성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기초가 된다.

**둘째,**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가치를 구현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생활의 양성평등 정신에 따라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한 가족가치는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고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의 가정생활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실현될 수 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부양을 위해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장기요양가족을 간호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며 나아가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취업여성의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확대하며 가사노동의 가치를 관련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책무는 가족지원서비스의 확대와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추진 그리고 체계적인 전문가 서비스지원체계와 함께 양성평등한 가족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셋째,**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을 기본단위로 하며,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 또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가족은 전통적 가족개념에서 벗어나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무자녀가족 등과 같이 다양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사회적 관용성이 증가하면서 가족개념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기존의 가족정책들은 장애인, 요보호노인, 요보호아동, 요보호여성 등과 같은 취약계층 개인에게 최소한의 개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 가정에는 가족의 구조나 형태에 관계없이 생활단위를 의미하는 모·부자가정, 재혼가정, 노인가정, 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맞벌이 가정은 물론 그룹홈이나 자활공동체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은

## 가정은 자립과 협동을 기초로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문화의 창조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인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넷째,** 사전적, 예방적 서비스체계를 지원한다.

가정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해결과 치료에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며 완전한 치료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가정의 건강성도 회복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예방적 기제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교육 등과 같은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고 이혼 전 상담을 통해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며, 이혼하려는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하고 나아가 이혼가족이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가정생활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섯째,** 가정이 자립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한다.

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자립과 협동을 들 수 있다. 가정의 자립은 가정생활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가정이 가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생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또 가

정의 협동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정간의 협력,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시설, 지역사회 다른 체계들과의 협력관계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결국 가정은 자립과 협동을 기초로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문화의 창조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이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그리고 건강가정교육 등을 실시하고 건강가정관련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육성, 장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이 능동적으로 자립성과 협동성을 증진시켜 건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하도록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가족단위 중심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여 가족기능의 강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한 사회적 자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개인발전-가족안정-지속적 사회발전의 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효율적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건강가정정책을 강구하고 추



진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소극적인 가족 정책에서 벗어나 가정과 사회가 공동책임을 지고 동시에 개입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제시하며 사전예방적 가족정책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 결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를 발전시키고 균형을 이루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건강가정을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건강가정에 초점을 두고,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강화시킬 수 있으며 가정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켜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가 가정복지의 중요성과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정자립을 이룰 수 있으며, 국민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조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가족기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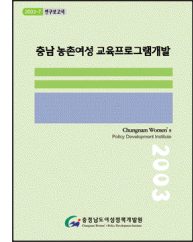
**넷째,**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정책과 건강가정사업을 기초로 민주적인 가정을 형성하고 양성평등한 가족가치를 제시하며 가사노동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사회적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와 국민적 관심 및 노력으로 확

대시킬 수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지원, 출산환경 조성 및 육아책임 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결혼에 의한 가족형성과 출산 안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다섯째,** 건강가정기본법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족유형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인·가정·사회의 진취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으며 법적 타당성에 대해 유연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 사회 전반에서 볼 수 있는 가부장적 가치관과 각종 차별로 인해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여 여성의 자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은 가정 문제에 대한 사후적, 개별적 접근에서 사전적, 통합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을 통한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행령이 법의 정신에 맞게 마련되고 성공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방안, 건강가정 사업 및 프로그램,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양성방안, 그리고 법의 실천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충남 여성

# 「충남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자 \_이 영 세(정책연구실장)  
\_김 영 주(교육팀 연구원)

## 1. 연구목적

농촌 생활환경개선, 여성 역할증대, 사회적 권한 확대 등에 대한 농촌여성들의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교육에 대한 농촌여성의 욕구도 점차 커지고 있으나, 현재 농촌여성의 교육 환경은 농촌여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농촌여성의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들이 농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의 교육이 취미·교양 강좌나 가정생활 부분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농촌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촌여성의 능력 개발,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농촌여성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영역과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기초적인 수준에서 개발하였다.

## 2. 주요 연구 내용

프로그램개발에 앞서 2장에서는 농촌여성의 현황을 통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개괄하였으며, 3장에서는 농촌여성의 교육에 관한 기존 조사를 검토하여 교육 현황과 교육에 대한 요구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충남 농촌여성의 교육참여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았으며 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현실적 여건들을 완화시킬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재의 교육이 취미교양 강좌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농업과 관련된 전문 교육이나 전반적으로 여성의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4장에서는 교육 프로그램개발 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5장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영역별과 대상별 프로그램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 3.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개발 체계

영역은 농촌여성의 의식 및 자아개발, 직업능력 향상, 생활 관리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상은 농촌여성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 농업경영자, 농업인, 주부 등으로 구분하여 대상의 특성과 관련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영역별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개발 체계

교육 영역	교육 주제	프로그램 단위
의식 및 자아개발교육	의식교육	자아찾기 양성평등의식, 부부평등의식교육 미래의 인생설계/여성농업인의식교육
	조직참여와 활동	리더십 개발, 조직운영과 관리
직업교육	영농기술교육	작물재배/목축/원예, 농기계 기술
	농업경영	경영관리, 농업회계, 농작물 유통과 판로개척, 신농산물 개발
	농업정보	신진농업 학습 농업여건의 변화와 농업정책 농업 정보
	기타 직업훈련	노인 도우미, 아동지도, 생태관광, 소자본 창업
취미·교양교육	기초교양	컴퓨터, 문화강좌
	여가·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예술, 공예, 미용 등
생활관리교육	가족관계·가족생활	부부갈등해결, 건강한 가족문화 농가의 생활설계
	자녀교육	자녀교육과 학습지도 자녀의 생활지도
	건강·보건	건강관리, 올바른 생활습관
	법률·생활·상식	생활법률·상식
	환경교육	환경교육

※ 교육대상별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개발 체계

교육 대상	중점 교육 내용
여성농업인	농업경영, 농업정보화, 농업기술교육, 의식교육
여성농업경영자	농업경영전문가과정, 농업정보화, 의식교육
여성지도자	조직관리·운영, 리더십개발, 의식교육
농가주부	부부평등의식교육, 직업훈련교육, 생활관리
일반 농촌여성(비농가 포함)	직업훈련교육, 생활관리



#### 4.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

이 중에서 영역별 교육프로그램 중 <의식 및 자아개발교육> 영역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예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의식 및 자아개발교육

※ 교육대상별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개발 체계

##### (1) 의식교육

교육 대상	목적	내용	방법
미래의 인생설계	현재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하루와 지금의 나</li> <li>·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li> <li>· 나의 장점 말하기</li> <li>· 내가 할 수 있는 일 발견하기</li> </ul>	개별작성 조별발표
양성평등의식	여성들이 농촌사회에서 다양하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의식을 높이고, 현재의 불평등한 관행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식을 키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li> <li>· 남녀는 무엇이 다른가?</li> <li>· 차별경험 말하기</li> <li>· 평등지향적인 의식과 생활태도</li> </ul>	강의 토론 조별발표
평등한 부부	평등한 관계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부부관계를 평가해보고,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분담 평가</li> <li>· 부부역할바꾸기 체험</li> <li>· 농기여성의 역할</li> <li>· 의사결정</li> <li>· 평등부부 사례발표</li> </ul>	강의 토론 사례발표
미래의 인생설계	자신의 미래상을 계획하고 실천방식을 모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생회고와 평가</li> <li>· 10년단위로 본 미래의 나의 모습</li> <li>· 내 미래 인생의 모델은 누구인가?</li> </ul>	개별작성 조별발표
여성농업인 의식교육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농업생산의 중심주체라는 자긍심과 의식을 강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의 어제와 오늘, 미래</li> <li>· 농업생산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li> <li>· 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li> <li>· 나의 일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li> </ul>	강의 토론 개별작성 조별발표



## (2) 조직참여 및 활동

단위 프로그램명	목적	내용	방법
리더십 개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학습하고, 리더의 자질을 키운다.	· 자기표현 · 리더의 역할과 유형 학습 · 효과적인	강의 발표
지도자 소양교육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함양한다.	· 지도력 향상 훈련 · 모범 지도자 사례소개 · 조직통솔 · 농촌사회와 단체의 역할 ·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현황 · 여성위원 활동 현황	강의 토론 발표
조직운영과 관리	조직운영과 회원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기법을 학습한다.	· 회의진행법 · 의사결정참여 훈련 · 조직의 재정관리 · 조직의 회원관리 · 단체활동 경험나누기	강의 토론 사례발표 모의실습

## 5. 제언

6장에서는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체제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교육대상별 특화된 교육실시, 교육을 위한 지원체제 확충, 참여 동기 유발, 농촌여성교육기관 지원, 농촌여성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실시이다.

앞으로 농촌여성의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여성의 생활 여건과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즉,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의 과정도 여성의 시각에서 구성되고 실시되어야 여성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 농사일 등의 여건으로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촌여성의 현실과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지원 체제 확립이 병행될 때, 농촌여성 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농촌여성의 평생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요구 조사, 정책 연구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충남여성



\* 지역문화 찾기 \_천안에 위치한 국보급 국가지정 문화재

## 「봉선홍경사사적갈비(奉先弘慶寺事蹟碣碑)」

- 지 정 : 국보 7호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320
- 지 정 : 1962년
- 규모/크기 : 전체높이 280cm, 비신높이 194cm, 너비 1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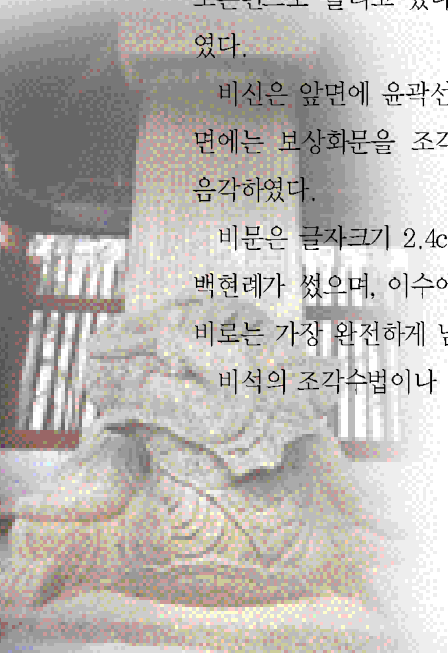
성환역 근처 홍경사지(弘慶寺址)에 이 비석이 서 있으며 건립연대는 고려 현종 17년(1026) 홍경사를 세운지 5년 후라고 한다. 그 옆 동편에 비석의 내용을 한글로 해설해 두었는데 이 비갈(碑碣)은 귀부와 이수를 갖추고 있는 비석의 형식을 갖고 있다.

귀부는 지대석과 함께 하나의 돌로 되어 있는데 등에 귀갑 무늬를 새기고 어룡 모습의 머리를 오른편으로 돌리고 있다. 비좌는 등 위에 장방형으로 복연과 양연을 새겨 비신을 받도록 마련하였다.

비신은 앞면에 운곽선을 돌리고 그 안에 비문을 새겼는데 바깥 주연에는 당초문대를, 양쪽 옆면에는 보상화문을 조각하였으며, 앞면의 전액에는 가로로 봉선홍경사갈기(奉先弘慶寺碣記)라고 음각하였다.

비문은 글자크기 2.4cm의 해서로 당대의 거유이며 해동공자라고 불리던 최충(崔冲)이 찬하였고 백현례가 썼으며, 이수에는 높은 산모양의 도식화된 운룡문이 새겨져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사적 비로는 가장 완전하게 남아 있는 예이다.

비석의 조각수법이나 양식은 힘에 넘치지만 도식화가 많이 이루어져 생동감이 없다.



## 「보협인 석탑」

- 지 정 : 국보 제209호
- 소재지 : 북면 대평리
- 지 정 : 1982년
- 규모/크기 : 기단부 55x66Cm, 높이 18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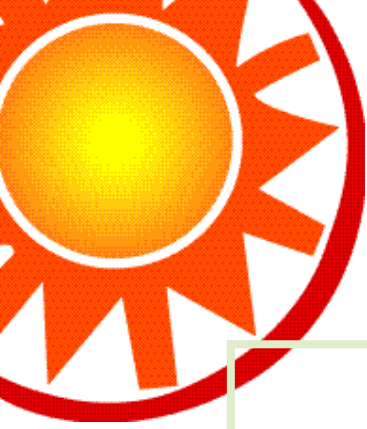
이 탑은 구조나 양식으로 보아 특수형에 속하는 오월왕전홍숙팔만사천기탑계의 이형석탑으로 우리나라에는 유일무이하다. 북면 대평리 탑골에 있는(구룡사라 구전) 절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흠어져 있다가 1967년에 천안으로 반출되었다. 동국대 박물관에 보관, 82년에 국보로 지정되었다.

기단석(55x66x49Cm)은 각면에 2구씩의 나한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당초문과 양연문이 조각되어 있는 탑신괴임석(59x59x26Cm)과, 탑신(50x50x46Cm)에는 각면에 석가본생도 조각, 사리공이 있다. 개석(55x66x49Cm)에는 당초문과 단선문, 48편의 연화문 조각이 새겨져 있으며 상륜부(55x66x49Cm)에는 4개의 마이상을 한 연화관을 네 귀퉁이에 세워 놓았다.

\_ 자료협조 : 천안시

\_ 글 정리 : 연구팀 김진홍





\* 함께하는 생각

## 햇살 같은 아이들.....

\_전혜경(학생, 공주시)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당신의 지난달은 어떠했습니까?”라고 물어 왔을 때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아이들을 만나게 된 지난 5월을 돌이켜 본다면 세상은 살아 볼 만한 아주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현재 대학 아동보육학과를 다니고 있다. 하지만 내가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나의 길인지 고민에 빠지는 시간이 많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아이들과 직접 만나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기회는 만들면 되는 것이지만 아이들 앞에 서기가 두렵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언제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지만 선 듯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실습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 아이들의 시간속에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움직이고 웃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알게 되었다.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진 내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용기내어 표현하지 못한다면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것을.....

내가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서는 조금은 서먹하지만 “나는 미래에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할 선생님이야!”라고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 아이들이 보는 눈으로 눈높이를 조금 낮추어 보니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 걱정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그런 고민을 하고 두려워 할 시간에 다른 걱정들을 했더라면 더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 줄 수 있고 더 많은 추억이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내 스스로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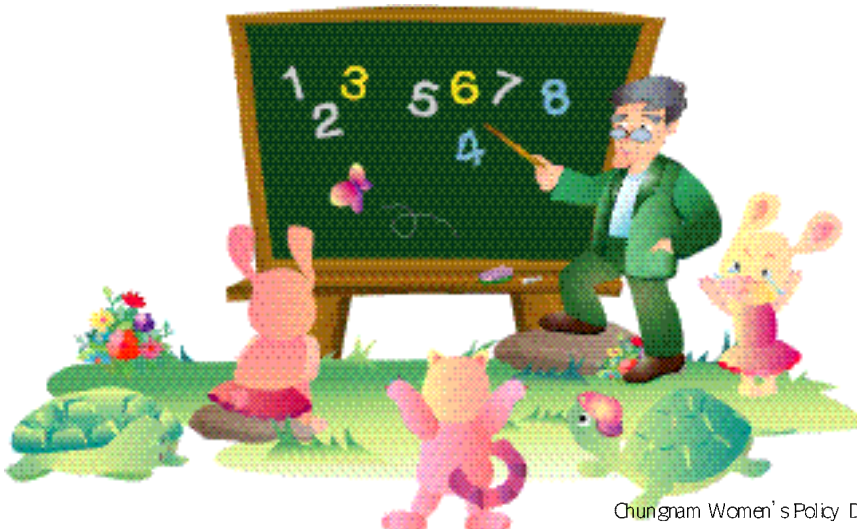
학교에 다니면서 과제물에 시간을 뺏기고 매 학기면 돌아오는 시험으로 인해 머리 아파하던 나의 모습들을 다 잊혀져갔다. 짧은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선생님”으로 불리지면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과정들은 보상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더 빨리 아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은 조기 취업까지 생각해 보게 된다.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현장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있는 그 현장의 따뜻한 웃음이 있는 시간들이 나에게 더 그립기 때문이다.

나도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키 작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내가 아이였을 때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 날에 꿈이 지금 현실로 이뤄지려고 한다. 나도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키 작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실습을 나가기 전 5월에 대한 두려움은 실습을 마친 지금 5월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으로 남았다. 내가 맡은 첫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지금도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소중하게 기억나고 사진속에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지금도 “선생님..있잖아요!” 하면서 내 옆에 앉을 것만 같다.

길가다 가끔 마주치는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야!”하고 나를 소개해 줄 때면 이제는 쑥스럽기 보다는 옆에 있는 아이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다. 햇살같이 환한 웃음을 주었던 아이들에게서 배운 세상은 아직 순수하고 따뜻한 그런 세상이었다. 지금도 가끔 아이들에게 전화가 올 때가 있다. 그 때 마다 난 다시 그때 그 시간이 그립고 생각한다. 첫 정을 준 아이들이라서 나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아이들이 될 것 같다. 아이들은 내 얼굴에 햇살 같은 미소를 주었고 나 또한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햇살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의 5월은 아주 특별한 아이들과 함께 한 햇살같이 따뜻한 날들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도 길을 가다 아이들을 만나면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곤 한다.



# 나의 여름

\_진명희

밤새 내린 빗속에서  
꽃잎이 젖어 웃고 있다  
웃음 속에 또 다시 피어나는 꽃잎  
그것은, 또 다른 모습의 내 여름이었다  
여름은 비와 눈물과 뜨거움으로  
나를 맘껏 뒤흔들었다가  
다시는 돌아볼 수 없는 점 하나만큼  
아픔을 심어준다, 아파야 하는 꽃잎,  
그렇게 피어나는 여름의 꽃들  
그들의 영혼까지  
나는 안아 주어야 한다  
짐 진 발걸음들이  
나를 향해 저벅거리지만  
그래도 젖은 웃음이나마  
건네주는 나의 여름이  
비 온 뒤의 햇살처럼  
뜨겁게 쏟아진다.

## \_약력

- \_ [조선문학] 신인상 수상으로 문단 데뷔
- \_ 제1시집 [하얀 침묵이 되어] (2001년, 조선문학사) 상재
- \_ 제5회 충남예술문화상 및 제11회 충남문학 작품상 수상
- \_ 한국예총 예산 부지부장 및 한국문인협회 예산부지부장
- \_ 국제PEN클럽한국본부 · [서안시] 문학회 · 시봉문학회 ·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원
- \_ 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 사무차장 역임

## 자원봉사활동의 소회

\_정희자(주부, 논산시 여성자원활동센터)

처음에 5월의 여성자원봉사왕으로 선정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참 쑥스러웠습니다.

저는 현재 44살 된 중학생 쌍둥이 엄마로,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예쁜 쌍둥이들 이렇게 다섯 식구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논산 은진에서 태어나 1989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논산 연무읍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리라 마음먹은 계기는 아는 선배가 적십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쌍둥이들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저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뛰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맘 놓고 편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저희 시어머니의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 한 아이들인데 얼마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까? 봉사활동 한다고 집을 비울 때면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 대신 집안일이며...적지 않은 연세에도 아이들까지 돌보아 주시는 시어머니께 정말 죄송스러우면서도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자원봉사활동을 합니다.

논산에는 군부대가 있어 군인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병원도 자주 방문해서 환자들 청소는 물론이거니와 군인들 병간호도 해줍니다.

제가 우리 쌍둥이가 어릴 때 종이접기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지난 1996년에 대전에서 종이접기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접기를 배워둔 것이 우리 쌍둥이들한테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군인병원에 정신이상으로 입원한 군인들과 함께 종이접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엔 논산시에서 무료로 스포츠마사지 교육을 받아 지금은 썬플 양로원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해드리는데, 시원하다시면서 그렇게 좋아 할 수 없습니다.

작은자의 집은 정신지체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주로 청소나 목욕 등을 해드립니다. 자원 봉사자는 자원활동 할 때마다 항상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썬플양로원에 방문하여 스포츠마사지 봉사활동을 할 때면 한 할머니께서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닌 저에게만 스포츠마사지를 받으려 합니다. 치매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를 찾아주는 것이 얼

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봉사활동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손을 잡으시면서 또 언제 오느냐며 울고 계십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터라 다 제 부모님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어딘가에 그분들의 가족이 있을 텐데 제대로 찾아뵙지 않아 더욱더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지하려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이지 친부모처럼 모셔야겠다는 생각은 언제나 하는데 좀처럼 쉽지가 않네요.

전 자원봉사하고 나면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군인병원에 갈 때 저희는 간식이나 김밥 등을 싸가지고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군장병)에게 나눠주는데, 우리가 정성스레 만든 음식이나 간식을 맛있게 먹어 줄 때의 그 뿌듯함은 그 아이들(군장병)의 엄마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작은자의 집에 있는 정신지체인들을 목욕시킬 때면 그 사람들이 마치 고맙다는 듯이 우릴 보고 웃어 줍니다. 그것처럼 천사 같은 미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또 스포츠마사지할 때 어른신 분들이 ‘아, 시원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아 하실 때가 제겐 아무래도 제일 큰 기쁨이자 보람이죠.

처음부터 제가 원해서 시작했었던 일이라 중간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100년만의 폭설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상월면 농가에 양란이 눈에 덮여서 복구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렸고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던 기억은 나지만 농가주민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우리 쌍둥이 아들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도록 내게 주어진 한도 내에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충실하면서 남은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몸이 건강한 그날까지 저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 첨단 기술의 집약체 고속열차(KTX)

\_한병래(홍성 주부모니터)

얼마 전 고속열차(KTX)의 상업 시운전에 참여하면서 고속의 맛을 보게 된다는 조금은 들뜬 기분으로 고속열차를 타게 되었다.

고속열차는 앞쪽 차량의 양쪽 머리 부분이 유선형의 상어 모양을 본 따 설계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공기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그렇게 설계되었을 것이고 차체도 기존의 열차보다 폭이 좁았다.

이쪽 차량과 저쪽 차량을 연결하는 틈새도 다른 기차들의 종과는 달리 바닥 표면이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어 깨끗하고 안정된 감이 들었다. 유리창과 표면의 턱도 조그맣게 되었고 차체 표면도 매끄럽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고속열차의 모습을 가진 고속열차의 개통을 통해 우리나라는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함께 시속 300km의 초고속철도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또한 고속철도의 개통은 빠른 속도를 통한 시간 단축으로 전국을 3시간 대 생활권으로 연결 국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서울과 부산 간 고속철도 건설로 철도여객은 수송 능력이 3.4배 증가하고, 기존철도의 화물수송 능력은 기존철도 여객이 고속열차로 전환됨에 따라 7.7배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고속도로 이용객도 고속열차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가 감소하게 되고 경부고속철도의 건설로 시간비용과 운행비가 절감되어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빠르며 경제적인 고속철도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어 경제·사회·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획기적인 운송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하며, 친환경적이고,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고속철도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매김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가까운 차창 밖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속력을 내는 열차를 보면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의 일갈에 모두들 함박웃음을 웃을 수 있었다.

“늦게 올라와 주춤거리다 보면 내리느라 바쁘겠다고……”



# 비어 있는 길

\_김난주

목백일홍 길게 늘어선 가로수 옆  
굳이 어디라고 말하고 싶잖은 거기  
혼자 걷는 길이 있다  
한여름 개망초가 흐드러지고  
철쭉이 피었고 더러 인동이 무더기로 피는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은 고샅길엔  
허물어져 가는 빈집이  
며칠 동안 세수도 않고 풀어헤친 머릿칼로  
읍내 시장을 돌며 히히 나를 보고 웃던  
분례 엄마처럼 쓰러질 듯 서 있다  
삭은 양철 지붕 무너져 내린 담벼락을  
짚레가 가시밭로 기어오르고  
밤이면 풀벌레소리 늦반딧불 찾아드는 곳  
자연은 그대로 둘 때 가장 자연스러운 거라고  
되내이며 걷던 길목  
순백의 절개로 무궁화 기다리고 섰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잖은 길 하나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

## \_약력

- \_ 시집 <은빛 자전거>
- \_ 한국시인협회 회원,
- \_ 현 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 이사
- \_ 현 서안시문학회, 뽕빛 시낭송회장, 계간지 <시와 사람> 운영위원

### 아산시취업정보센터, 높은 취업률 22.5%...

- 총 구직등록자 2,806명중 440개 업체에 634명 취업 -

아산시에서 설치 운영중인 취업정보센터(직업상담원 조진선)가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며 구인·구직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일일노동자,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노인취업희망자 등 구직자에게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하여 지금까지(2004년 5월 31일 기준) 총 구직등록자 2806명중 440개 업체에 634명(공공근로 미포함)을 취업시켜 22.5%대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좋은 성과는 취업정보센터가 단순 접수·알선에만 그치지 않고 관내 모든 취업정보를 적극 수집하는 한편 취업정보지 발행(월2회 1000부) 및 시홈페이지와 Work-net에 구인·구직을 게시하고 시정신문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인력창구 역할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구인 및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취업정보센터(☎540-2880)나 아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생활정보 창의 구인구직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 에너지 절약 우수 가정 'CASH BACK' 실시

아산시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하절기를 맞아 전기를 절약한 가정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6-9월중 연속된 3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전기 사용량을 10%이상 절약하는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 팩스, 우편,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절약 성과는 한전의 요금 관련 Data Base 또는 전력요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세대별로 2만원의 인센티브를 오는 10월중 개인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대전·충청남도지사 ☎042-527-6953~5, 525-0365) 또는 팩스 042-523-3441로 문의하면 된다.

## 200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 - 2003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案 심의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사장 조남계)은 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2003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심의와 함께 「어린이 인성학습원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여성정책발원은 이날 지난해 사업실적보고에서 ▲기본연구과제 13건과 충청남도 현안과제 11건 수행 ▲워크샵 및 세미나 등 연구조성사업 18회 개최 ▲14회에 걸친 2,400여명의 여성 교육 실시 등 해가 거듭 될수록 양적, 질적 성장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보육정보센터 설치, 중부대학교와의 공동 학술·연구교류협정 체결, 일본 구마모토현·여성부 등으로부터 4건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등 대외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여성개발원이 기존의 여성정책 연구와 여성교육,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충남도가 설립예정인 「어

린이인성학습원」을 운영하게 되면, 여성발전을 통할하는 전국적인 여성중심의 모델기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기금은 지난 2002년보다 2억원이 늘어난 38억원이었으며, 이는 용역 및 수탁사업 수익금 5,000만원과 유휴 시설을 활용한 시설임대사업 수익금 3,000만원등으로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기금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실시

본원 여성교육부에서는 4월19일~23일(1기), 26일~30일(2기) 2차례에 걸쳐 5일간 남녀공무원 81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양성평등한 시각으로 생활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양성평등 문화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날, ▷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

(권정숙, 청운대학교 교수)

'생활속의 평등의식 자가점검 및 평가'

(권정숙 청운대학교 교수)

둘째날, ▷ '여성공무원의 현황과 지위'

(김경희 행자부 여성정책관)

'양성평등 조직문화'

(이길상 특허청 특허심판관)

셋째날 ▷ '여성정책 및 관련법에 관한 이해'

(육소영, 충남대학교 교수)

'성인지 정책의 기초 이해'



(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  
 넷째날 ▷ '성인지 정책 추진 기구 및 추진현황'  
 (문지현 서울여대 교수)  
 '성인지력 훈련 및 정책분석'  
 (구미현 대전시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원)  
 다섯째날 ▷ '성인지 정책실습(기획, 집행)' 및  
 '성인지 정책실습(분석, 평가)  
 (이영세, 김영주 본원 여성교육부)

본교육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해본결과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한다'는 답변이 '94.7%'였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다른 교육이 있으면 더 받고 싶다고 하였으며, 업무에 항상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습니다.



▷ 교육생 명단(81명)

충남도청 - 황장순, 이상영(1기) /  
 문봉호, 명귀순, 임재란(2기)  
 천안시 - 한선희, 전경애(1기) / 김용경(2기)  
 공주시 - 류병도, 김영신(1기) /  
 원치연, 권용순, 이선행(2기)  
 보령시 - 박미자, 이소영, 구인선, 양정석,  
 정명옥(1기) /  
 양희영, 유혜영, 배홍식, 천혜진,  
 김웅집(2기)

아산시 - 조정숙, 변상범, 문현숙(1기) /  
 안병갑, 김성미(2기)  
 서산시 - 박정식(2기)  
 논산시 - 이창우, 정애희(1기) /  
 국경호, 정복순, 강선례(2기)  
 계룡시 - 서정권, 김대준(1기) / 김은영(2기)  
 연기군 - 김남기, 김남길, 김연숙, 김수영,  
 박미순(2기)  
 부여군 - 김영심, 유재현(1기) /  
 조한배, 박영임, 신미정(2기)  
 서천군 - 한상일, 박연우, 박광규(1기) /  
 신동원, 장영애, 이수정(2기)  
 청양군 - 정성희, 김미경, 이강국(1기) /  
 이기청, 장순옥(2기)  
 홍성군 - 김 영(1기) /  
 박명서, 조준형, 이민우(2기)  
 예산군 - 황선봉, 최동학, 전수경, 박이규,  
 주호미(1기)  
 태안군 - 안상흠, 김성호(1기) /  
 문현배, 이상희(2기)  
 당진군 - 구본항, 최병부, 김민지, 박종욱,  
 성수자(1기) /  
 송완순, 정승모, 서지현, 한학수,  
 김기창(2기)

**성폭력 전문상담원과정 교육 실시**

여성교육부에서는 5. 24(월) ~ 6. 4(금)까지 총 65시간에 걸쳐「성폭력 전문상담원과정」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성폭력 피해여성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며 성인지적 시각을 가진 전문상담원을 양성하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교육내용은 성폭력의 기초이해, 성폭력 상담에서의 여성주의적 접근, 충남귀화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지원방안, 혼인귀화여성농업인의 이해 및 상담기법, 성폭력 관련법의 이해와 법적 대응 및 절차, 성폭력에 대한 상담치료적 접근,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과 이해, 전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등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본원 원장(이재우)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받았고, 성폭력전문상담원 자격 및 상담소 개설 자격요건을 취득하였다. 교육생들은 앞으로 각 지역 여성관련 상담소에서 상담자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 동안 배운 상담이론을 실제로 적용해 보고, 경험함으로써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성폭력전문상담원이 되어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앞장서게 된다.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교육내용이 매우 좋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교육을 더 받고 싶다”면서 “이런 교육기회를 주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교육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적 자질을 갖춘 성폭력전문상담원이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성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04년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본원에서는 2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0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갖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제3기 이사장에 兪德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제5대 원장에 李在隅 前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이사장 선출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정관에 의거 14명의 이사 중 유덕준 행정부지사를 만장일치로 호선 선출했다.

또한, 이날 재선임된 이재우(李在隅, 67세, 女, 사진)원장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여성특별위원회 비상임위원, 본원 3·4대 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沈지사는 “새로 구성된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오는 7월이면 개원 다섯 돌을 맞이하고 있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을 충남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산실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본원 이사회는 지난 5월 18일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을 이끌어 나갈 제3기 이사회(2004. 6. 24~2007. 6. 23) 이사(9人)와 감사(1人)를 선임한 바 있다.





**충남도, 池英愛 여성정책관  
「근정포장」 수상**

-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 -
- 제9회 여성주간 맞아 '근정포장' 받아 -

충청남도 池英愛(지영애, 54세, 사진) 여성정책관이 그동안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한 공을 높이 인정받아 제9회 여성주간의 맞아 하여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받았다.



지영애 여성정책관은 지난 1969년에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충청남도 아동상담소에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후 33년 여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여성·가정·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2001년 1월부터는 충청남도 여성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시행해오고 있다.

池여성정책관은 그 동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성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충남여성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6개 분야 103개 과제) ▷여성정책의 Think-Tank인 여성정책개발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운영기금 37억원 조성) ▷전국 최초 「母子복지기금」 조성·운영(20억원)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여성

정책총괄 조정회의」 운영 ▲「性認知的 정책형성」과 양성평등 촉진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위촉(32.9%) ▷「충남여성인명록」 발간(13개 분야 1,050명)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18건) ▷여성정책개발원에 양성평등의식 향상 교육과정 운영(매년 80명) ▲要보호여성 발생예방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충남지역협의체」 구성·운영(檢·警 등 19개 기관)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체계 구축 ▷性·家暴 피해자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15개 상담소, 「1366 긴급전화」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재정 지원, 매년 250백만원)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성화된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여성자치대학 등 5과정) ▷지역여성평생교육협의체」 구성·운영(29개 기관 참여) ▷여성 자원활동 활성화와 사기양양 대책 추진 ▷「충남여성포럼」 발족·운영(103명) ▷「유관순賞」 및 「유관순햇불賞」 시상제도 마련 시행 등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양성평등사회 구현 등에 많은 기여를 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은 ▷1969년 충남고등학교 졸업 ▷1986년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졸업 ▷1994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 ▷1996년 충청남도 기획관실 의회협력계장 ▷1998년 충청남도 총무과 서무담당 ▷2001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여성정책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第3回 「유관순賞」 수상자 田瀬禧씨,  
유관순열사의 고향 병천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 지급

류관순열사기념사업회(회장 류근창)는 5월 3일 천안 병천 류관순기념관에서 병천고등학교장, 병천면장, 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병천면 지역에 거주하는 모범 소년소녀가장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지급한 장학금은 제3회 유관순賞수상자인 전숙희 한국현대문학관 이사장이 지난번 받은 시상금 500만원을 류관순열사 기념사업회에 기탁해 유관순열사의 고향인 병천면 지역의 모범 소년소녀가장 5명(아우중 2명, 병천고 2명, 천안공고 1명)에게 지급됐다.

이날 류근창 회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꿈과 용기를 갖고 유관순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아 훌륭한 미래 한국의 지도자가 되어주길 당부”했다.



2004년 여성자원봉사  
전문교육 5개과정 운영

충청남도는 도내 여성들에게 자아실현과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천안·서산 등 8개 시·군에서 수화·수지침 등 5개 과정 9개반의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아짐에 따라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7개월 동안, 반별로 20~80여명씩 모두 330여명을 대상으로 1~2개월씩 지역의 수요와 지역실정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과정은 ▲수화반(1개반)/천안시 ▲노인놀이지도자과정(3개반)/서산시·청양군·홍성군에서 ▲발마사지(2개반)/계룡시·논산시에서 ▲수지침(2개반)/서천군·태안군에서 ▲종이접기(1개반)/당진군에서 각각 5개 과정 9개 반이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실습 및 현장체험을 강화하여 과정을 마치면 곧바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은 과정별 해당 시·군청 여성복지 담당부서에 교육신청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  
개소 후 1년, 이용자 3.5배 늘어**

**- 생활용품분야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아 -**

지난해 5월 13일 충청남도소비자보호센터가 개소(2003. 5. 13)된지 1년 동안 센터에서 처리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건수는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03. 5.13 ~ 2004. 5.12)의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상담·처리한 건수는 총 391건으로, 개소이전 1년 112건에 비해 3.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1년간 접수·처리한 391건은 ▲전화상담이 385건(9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방문상담이 6건(1.5%)이었으며 ▲이중 257건(65.7%)은 단순상담이었고, 134건(34.3%)은 처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피해구제 상담이었다.

이를 접수 유형별로 보면 ▲생활용품 상담이 112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관련분야가 83건(21.2%) ▲보험·금융분야 57건(14.6%) ▲식품분야 43건(11.0%) ▲문화분야 35건(9.0%) ▲건축분야 26건(6.6%) ▲의류·세탁 분야 19건(4.9%) ▲기타 16건(4.1%)으로 나타났다.

또,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피해구제처리가 134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제도 설명 93건(23.8%) ▲내용증명발송 87건(22.3%) ▲수리 45건(11.5%) ▲환급및 교환18건(4.6%) ▲타기관 안내 14건(3.5%) 등이었다.

도 관계자는 “도소비자보호센터는 전문성 부

족으로 시·군소비자보호센터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을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을 원하는 분은 충청남도소비자보호센터(☎042-221-9898 또는 042-220-3216)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소비자보호센터는 앞으로 디지털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제도를 확립시키고,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활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비자피해구제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04 주부인터넷경진대회」  
시상식 가져**

**- '중년부/王禎兒씨, 장년부/文永秀씨' -**

충청남도는 5월 31일 도청 대회실에서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주부인터넷경진대회 입상자,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에 주부들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와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개최한 「2004주부인터넷경진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된 사이버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40명이 겨룬 본선대회에서 입상한 중·장년부 각 9명씩 모두 18명으로, 입상자들에게 도지사상과 부상이 수여됐다.

이날 최우수상에는 ▲중년부에서는 王禎兒(왕정아, 27세, 천안시 봉명동 거주)씨가 ▲장년부는 文永秀(문영수, 43세, 홍성군 홍동면 거주)씨가 도지사상과 함께 부상으로 각각 50만



원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沈大平충남도지사의 축사를 대신한 兪德濬 행정부지사는 “「디지털 충남」을 선도해 나갈 입상자들을 축하하고, 충남도가 디지털 선진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 관계자는 “주부인터넷 경진대회를 통해 도내 주부들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와 정보화 능력 배양에 많은 보탬과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부들의 정보이용 생활화로 가정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해나가는 한편, 정보이용 저변 확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청남도는 주부인터넷경진대회 이외에도 꿈나부인터넷 경진대회, 실버인터넷 경진대회,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 등을 연중 개최하여 계층별 정보화 붐 조성에도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충남생활개선회, 매일 첫째 수요일 음식물 쓰레기 없는 날 캠페인 실시

충청남도생활개선회(회장 김용남)에서는 2일 천안터미널주변에서 道·천안시생활개선회원 50여명이 모여 “매일 첫째 수요일은 음식물 쓰레기 없는 날” 실천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효과를 도모하여 음식쓰레기로 인한 소중한 식량자원의 낭비와 막대한 처리비용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등 우리의 자원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 친화적 소비생활을 실천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날 회원들은 음식쓰레기는 수거도 없는 날, 한톨의 쌀도 버리지않던 선조들의 지혜 실천, 음식쓰레기 없는 생활로 환경친화적 소비생활 실천, 철저한 냉장고 관리로 식재료 낭비를 줄이기, 적당량 음식조리, 올바른 분리 배출로 음식쓰레기 재활용 등의 실천 의지를 보여 많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김용남 도생활개선회 회장은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꼭 먹을 만큼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 습관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沈지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봉사활동**

**- 6월6일, 논산시 '성모의 마을' 찾아 -**

심대평(沈大平) 충남도지사는 지난 6월 6일 오후 2시 논산에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성모의 마을」을 찾아 시설 청소와 저녁식사를 도와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沈 지사는 이날 40여명의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성모의 마을에 도착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요양시설의 안팎을 깨끗하게 대청소 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85명)의 저녁식사를 도왔다.

沈 지사와 동행한 도청 공무원들은 유난히 더운 날씨 속에서도 3시간여 동안 시설 바닥과 시설물의 묵은 때를 닦아 냈으며, 온몸이 땀으로 젖어들고 숨은 가빴지만 누구하나 쉬지 않고 일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젖은 땀이 마르기도 전에 시작된 장애인들의 저녁식사를 돕는 시간이 되자,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은 땀 대신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혼자 힘으로는 수저 들기도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일이 밥과 반찬을 떠 먹였고, 때로는 목으로 음식 넘기기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시종일관 웃는 얼굴과 진지한 자세는 잃지 않았다. 그러나 미소 뒤편에 고이는 눈물은 아무도 감추지 못했다.

이날 沈 지사는 봉사활동을 마치면서 “비록 장애인들과 함께 한 시간은 짧았지만, 장애인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다

시 한번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면서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곱고 아름다운 천사였다”고 말하고, “충남도가 추구하는 인본복지행정의 시작은 오늘처럼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 도와주는 작은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봉사활동을 자주 갖고 싶다.”면서 “오늘 현충일을 맞아 후손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피땀을 흘리신 어르신과 국가유공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덧붙이고, “소외시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동행한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성모의 마을」은 논산시 상월면에 위치한 천주교 대전교구(교구장 경갑룡)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지난 '95년에 개원하여 현재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뇌병변(腦病變) 등 85명의 1급 중증장애인을 50명의 종사자가 돌보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이다.

### 「파랑새가족자원봉사단」 본격 운영

충청남도는 최근 사회여건 변화와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가족단위 생활문화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140개 파랑새가족자원봉사단」이 다른 사회봉사단체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랑새가족자원봉사단은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충청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달에 1회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한 초·중·고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수요처와 가정 특성에 맞는 활동내용을 선택하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토요일·일요일에 펼쳐진다.

이들 파랑새가족자원봉사단은 사회복지시설 방문 말벗 해주기, 청소, 빨래, 건강마사지, 목욕시켜드리기, 아동학습지도, 장애우와 나들이하기, 이·미용, 무의탁노인·저소득세대 밀반찬 만들어 방문하기, 도로변꽃밭 잡초제거, 쓰레기수거, 재활용품 분리체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파랑새가족자원봉사단은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독거노인 등을 찾아 정성이 담긴 봉사활동을 펼쳐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한편,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및 사교육 활동 등으로 가족구성원간의 대화 부족으로 빚어지는 가정 내 갈등을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갈등을 해소시키는 촉매역할이 기대된

다고 말했다.

한편, 파랑새가족자원봉사단 참가자 전원에게는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파랑새가족자원봉사단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희망하는 가정은 관할 시·군청 여성복지 담당부서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 제8회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개최

충청남도는 6월 12일 삼교호관광지에서 지역 주민·관광객들이 함께 한 가운데, 그동안 틈틈이 실력을 쌓은 15개 시·군 주부풍물패들의 기량을 겨루는 ‘제8회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를 개최했다.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는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당나루풍물놀이(대표 문선이)가 주관하는 행사로 조상 대대로 이어온 고유의 전통민속 예술을 보존·계승 발전시키는 물론, 도내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주부풍물대회로 해를 거듭 할수록 기량과 실력이 더욱 향상되는 등 수준 높은 「주부풍물대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 되어 온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참여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삽교호관광지로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충남여성농업인,  
『우리 쌀 사랑』캠페인 전개**

(사)한국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회장 박인주)는 6월 13일부터 3일간 200여명의 여성농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공주-연기-아산-천안 등 주요 시가지를 도보로 순례하며 지역의 우수브랜드 쌀 홍보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우리 쌀 사랑』캠페인 국토순례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기간 동안 ▲지역우수 브랜드 쌀 홍보 ▲지역 브랜드 쌀로 만든 떡 나눠주기 ▲우리 쌀 사랑 서명 운동 전개 ▲우리 쌀 사랑 엽서 쓰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15일에는 마지막 기착지인 천안시 아라리오광장에서 여성농업인·유관기관·사회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쌀 사랑』 캠페인

국토순례 충청남도 해단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박인주 충남여성농업인회장은 “쌀 재협상을 앞두고 우리 쌀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여성농업인들이 앞장서 쌀 소비 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생활개선회,  
불우이웃돕기행사 가저**

- 14일 금산 평화의 동산 찾아 -

충청남도생활개선회(회장 金容男, 51세)는 6월 14일 道, 시·군생활개선회장단과 금산군생활개선회원 등 27명은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소재 평화의 동산을 방문 노인들과 하루를 보냈다.

이날 생활개선회원들은 노인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방안 청소·주변 환경정리를 한 후 미리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다.

도생활개선회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사랑의 쌀 모으기, 도내 복지시설방문 청소·목욕



등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시해 오고 있다.

김용남 道생활개선회장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1만 6천여명의 농촌여성들로 조직된 생활개선회가 앞장서서 도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성 복지상담』관계자 워크숍 가져

#### - 21일, 성폭력 업무 담당자 대상 -

충청남도는 21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시·군의 성·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과 상담자 자원봉사자·관계 공무원 등 108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자살·이혼·폭력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족해체 현상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상담기법을 전달하기 위한 「여성 복지상담 관계자 워크숍」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여성권의 증진사업 추진방향과 가족해체 현상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 성폭력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김기환 여성부 인권복지과장이 「2004권익증진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한재희 천안대학교 교수의 「한국문화의 특성과 심리적 이해와 다문화 상담을 통한 한국적 상담관계 형성」에 대해 ▲이상영 충청도청 여성복지담당장의 「회계·문서실무 및 상담원의 자세」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으로

관련분야 상담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도내 여성복지상담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이 같은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언제·어디서나 국번 없이 1366상담전화와 시·군 상담소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는 성·가정폭력상담소 13개소와 긴급전화 「충남여성 1366」, 여성복지상담소 2개소 등 모두 18개소가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도청 여성정책관실(☎042-251-252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道, 여성주간 맞아 기념사업 풍성

#### - 7월 5일 공洲에서 “여성대회” 개최 -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 조춘자)와 함께 제9회 여성주간(7.1~7.7)을 맞이하여 “함께 일하고 같이 키우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발전과 남녀평등촉진에 범도민적인 관심을 제고시키고 생활속의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뜻 깊은 기념사업을 펼치기로 하였다.



충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도지사 담화」발표 ▲기념행사 개최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 ▲「평등문화가정」선발 ▲모범가정 표창 격려 ▲지역 여성언론인 초청 간담회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교육 ▲道, 市·郡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협의체」회의개최 ▲「性 바로알기 릴레이교육」운영 ▲「여성복지시설협의회」간담회개최 ▲2030 우먼리더십 캠프 운영 ▲「충남여성 자치대학」운영 등이다.

이들 행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7월 5일 公州 백계실내체육관에서는 1천여 명의 도내 여성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여성주간기념 「제21회 충청남도 여성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부 행사에서는, 참가자 전원을 4개 팀으로 나누어 「충남여성 한마음대회」를 열어 사랑의 징검다리 등 9개 종목에 걸쳐 경기를 벌인다.

2부에서는 여성발전 유공자 20명(민간인 16, 공무원 4)에게 도지사 표창을, 생활속의 평등문화 실천에 앞장서 온 16가정에게 「평등문화 가정 패」를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최순자씨(53세)를 모범여성으로 시상할 계획이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16가정)도 격려할 예정이다.

또, 이번 여성주간((7월 7일)에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주관으로 아산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일본 구마모토현 시오타니 요시코 지사 등 여성계 인사 20여명과 「충남여성포럼」회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노인 복지 정책 서로에게 배운다.”를 주제로 양 道縣의 “여성노인정책”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 상호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긴밀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밖에 道에서는 7월 월례모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7월 12일에는 “지역 여성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 14일에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도·시군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4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매주 1회씩 350명을 대상으로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였으며,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4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충남도의 관계자는 “이번 제9회 여성주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있는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도민들의 일상생활속에 양성평등 문화가 더욱 확산·정착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아동을 위한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소**

**- 13세 미만의 아동, 정신지체장애인 대상 -**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정신지체장애인이 성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여성부는 성폭력을 당한 아동들의 2차피해를 없애기 위해 6월18(금) 신촌에『해바라기아동센터』를 개소한다.

연세대의료원(원장 강진경)에 위탁돼 운영되는 이 센터에는 피해자 및 가족에게 상담과 의료지원 뿐만 아니라 사건조사와 소송을 위한 법률지원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지원 지연, 수사단계에서의 반복진술 등 성폭력 피해아동이 사건처리단계에서 받는 2차피해 문제를 해소해 보다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5월부터 센터개소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이미 12명의 피해자가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과 고소·고발 등 수사업무를 지원받고 있으며, 센터개소 이후부터는 피해아동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 해바라기 아동 센터  
02-3274-1375(13세미만 치료)

**여성정책조정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로 활성화 기대**

**- 여성발전기본법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발전기본법개정령안을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외부 여성정책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좀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여성정책의 조정·심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동안 여성정책조정회의에는 정부위원만이 위원의 자격이 있고, 정책조언을 받기위하여 전문가를 일부 참여토록 하였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정식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여성정책의 조정과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2월 11일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성매매방지대책, 호주제폐지추진, 여성정책기본계획 연차계획 등 주요 정부의 여성정책현안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문의 : 여성부 정책총괄과  
Tel : 02-3703-2523



### 한국 여성정책 10년 평가 심포지엄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정현백)은 6월1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은희 여성부 장관을 비롯해 여성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돌아보며 내다보며...’라는 주제로 여성정책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0년 간 한국 여성의 법적, 제도적 지위는 향상됐으나 ‘일하는 빈곤층’의 대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출산과 육아 문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출산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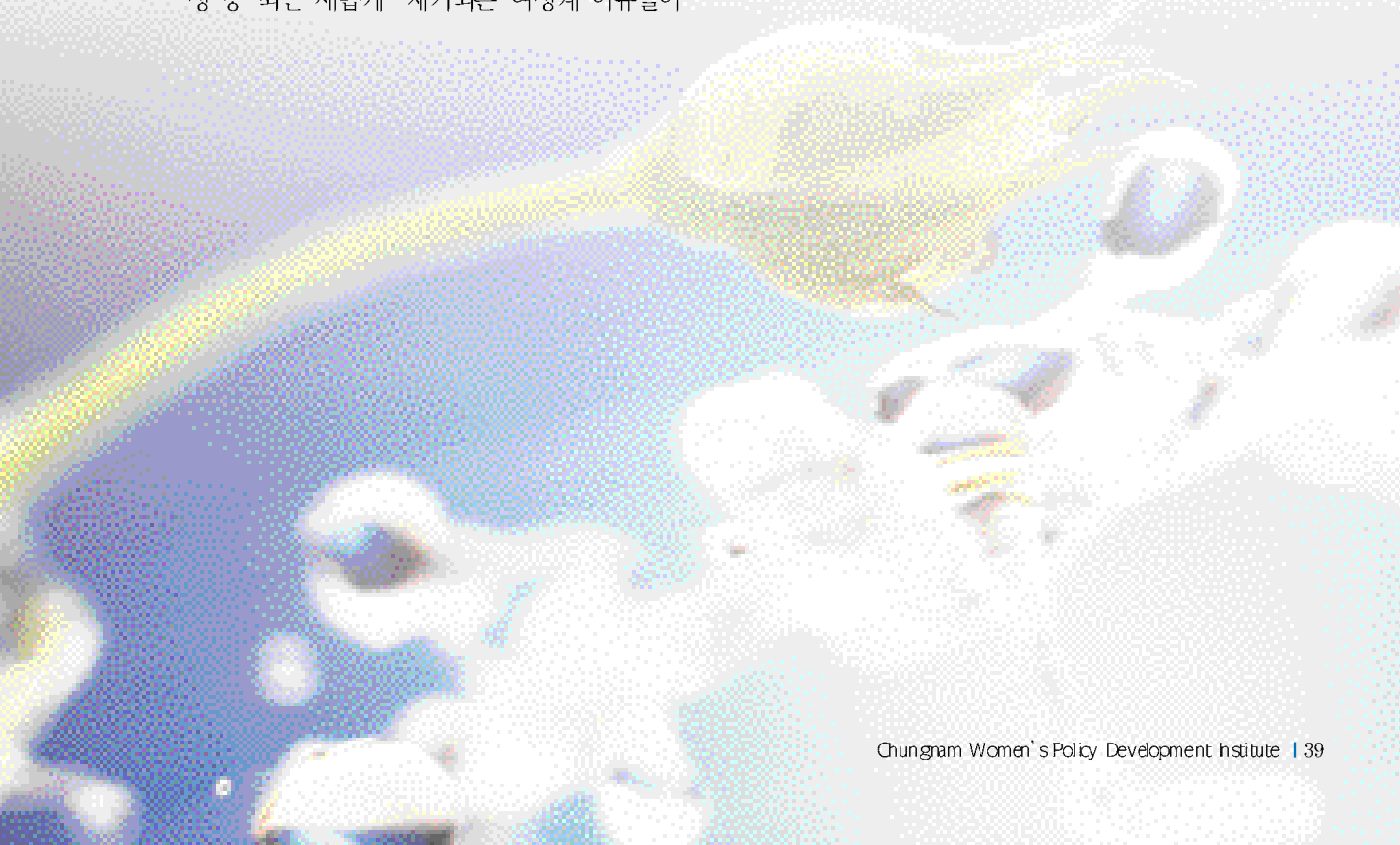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10년 간 한국 정부의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주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 여성 등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여성계 이슈들이

다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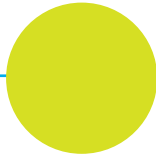
이어진 토론에서 정현백 여성연합대표는 “향후 여성운동은 여성정책과 관련해 보다 통합적인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한다”며 “통합적 패러다임의 모색과정에는 양성평등한 가족개념과 가족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우 여성부 정책총괄과장은 “북경행동강령의 구체적인 이행 내용은 여성부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국가보고서가 발간되면 전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는 유엔이 여성의 지위향상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마련한 국제회의로 당시 세계 189개국에서 참석한 5만여명의 정부대표, 유엔관련 기구, NGO 대표 등은 빈곤, 폭력, 여성차별 등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퇴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양성평등과정의 다정했던 얼굴들을 떠올리며...

\_이영세(정책연구실장)

2주일간의 공무원 양성평등과정 1, 2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쉬움과 허전함을 남기고 떠난 교육생들의 다정했던 모습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5일간이었지만 그동안 정이 들었습니다.

유비, 장비, 우리삼촌, 동장님, 귀여운 아줌마, 넉넉한 아줌마, 씩씩한 아줌마, 든든한 아줌마, 똑똑한 아줌마, 멋쟁이 아줌마, 삼총사, 꺼병이, 모범생, 깡쟁이, 재롱둥이, 깡두기, 반항아, 막내 등등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언제 또 다시 볼 수 있을런지요.

교육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차출되어 오시는 분들의 독특한 표정과 분위기로 인해 '수배' 당해 오셨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딱딱했던 표정들이 차츰 사라지고 한 교실에서 공부하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유쾌한 분위기로, 함께 했던 일주일이 사뿐히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의하신 모든 강사님들도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빡빡한 일정 중에서도 교육생들끼리 많이 친해졌고 2기 수료생들은 모두 함께 동학사로 뒷풀이도 다녀오셨습니다. 모임을 위해 애를 써 주신 공주시의 원치연님과 보령시의 김웅집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쉬웠었습니다만 참 고맙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여성교육부의 연구원들은 여러분이 남기고 가신 교육에 대한 의견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였다'는 분이 전체의 32.5%이었고, '만족하였다'가 62.1%로 참석하신 거의 모든 분이 이번 교육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셨습니다. 강사들에 대한 평가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육준비와 교육지원에 대하여 만족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유익한 교육이었고 친절하게 교육을 진행한 저희 여성교육부 팀원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교육을 위한 건의나 바라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쓰는 항목에서도 많은 분들이 세심하고 성의 있게 적어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양성평등과정을 기본소양교육으로 확대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성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교육을 일찍 받았더라면 가정에서 아들 딸을 키우는 방법도 훨씬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양성평등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적인 교육이라도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시군과장급 이상의 관리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반

을 개설하여 성인지정책이나 양성평등한 문화를 효과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지역이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양성평등의식과 정책 기획과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과 토론의 시간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남성 강사가 더 많이 배정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충고도 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성인지적 통계작성 교육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을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의견과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던 저를 포함한 여성교육부 연구원들은 큰 보람을 느꼈고, 다음 교육과정은 더욱 알차고 유익하고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를 의논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에는 교육생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하여 교육에 접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비디오, 산책 등의 문화 활동을 더욱 알차게 꾸며서 딱딱하고 힘든 교육의 부담을 가능한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교육프로그램 개발팀, 강사, 교육생들에 의해 핵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행정이

나 교육환경이 덧붙여 작용합니다. 교육 계획과 진행, 평가 등의 모든 부분에 이 세 파트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팀은 강사진들과 교육생들의 요구에 더욱 귀를 열어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양성평등교육생 여러분들을 공직사회에 잘 뿌려진 씨앗으로서, 그리고 저희 원의 귀한 가족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 오신 분들 한분 한분이 모두 귀한 자원입니다. 앞으로 힘을 모아 서로의 개성과 특성을 잘 살려 공직과 지역사회의 평등문화가 펼쳐지는데 서로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 있는 생각과 습관이 쉽게 바뀔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녀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5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과 역할이 이제는 변해야 하고 변하지 않으면 모두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큰 성과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은 저희들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깨우쳐 주셨고 따뜻한 말씀과 격려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넘치는 재치와 유머로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주인이었고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 따뜻함은 우리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 제11회 충남여성포럼

- 가정의 달 맞아 “가족 해체위기와 해결방안”주제 토론 -

충남여성포럼(선임대표 林善姬)은 20일 금산소재 중부대학교에서 유덕준 행정부지사, 이호일 중부대총장, 신혜중 순천향대 교수, 여성포럼·여성단체회원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해체위기와 해결방안모색’을 위한 「제11회 충남여성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가정해체에 대한 실태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건강가정기본법」과 정부의 정책추진, 사회구성원들의 의식변화에 대하여 하여 모색해보기 위한 자리로 ▲1부에서는 ▷임선희 충남여성포럼 선임대표의 인사 ▷유덕준 행정부지사의 격려사? 이호일 중부대총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신혜중 순천향대교수가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과제’ ▷여성정책개발원 김종철 박사의 ‘건강가정활성화를 위한 가정정책’ 발표에 이어 ▷이승미 우석대학교 교수 ▷김진현 대전여민회 사무국장 ▷모선희 공주대학교 교수 등이 열띤토론을 벌였다.

이날 신혜중 순천향대 교수는 주제 보고를 통해 단독 및 1세대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이혼으로 인한 것이라며, 2003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98년 전국의 이혼건수는 116.7천건에서 2003년도에는 167.1천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고는 있으나 앞으로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 할 수 있어야하며,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정책의 비전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여성정책개발원 박사도 연구논문에 통해 ‘가족해체의 원인중 60%가 사망, 40%가 이혼 및 별거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사망에 의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혼에 의해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 이훈울(인구천명당 이혼건수)을 보면 92년에 1.2이던 것이 2002년에는 3.0으로 10년전 보다 2.5배 증가하였다.’며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해서는 출산, 이혼, 결혼에 대한 법률과 제도적인 개선은 물론이고 가부장적인 의식, 세대간 격차해소, 양성평등적인 관점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도 바뀌어져야 하며 다양한 가족형태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해나갈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과 정부, 기업,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담화문

- 제9회 여성주간(7. 1 ~ 7. 7.)에 즈음하여 -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1주일간은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여성주간입니다.

이 뜻 깊은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그동안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해 주신 여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주간은 여성의 발전과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드높여 실질적인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로, 여기에는 여성 관련 보육문제를 정부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육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성인력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가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이미 지난해에 '보육정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는 도본청에 보육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기대하며, 다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생활속의 평등문화를 확산·정착시켜 나갑시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펼쳐온 살림·명절·육아·자녀교육·회식문화의 5대 생활문화 개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를 권장하고 도와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여성 인적자원이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취업과 사회 활동 등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기회균등의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남녀가 서로 존중하면서 때로는 정정당당히 겨룰 수 있도록 기회 제공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앞장서는 일등 충남, 남녀가 다 같이 행복한 일류 충남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라며, 100만 충남여성과 도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4년 7월 1일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 함께하는 이야기

##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승진

“함께하는 이야기”는 취업이나 노동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_편집자 주

**Q.** 저는 산업용BOARD를 개발하는 벤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산업용을 다루다 보니 여직원 보다는 남자직원들이 많습니다.

처음 회사 면접시 남자/여자 차별없이 똑같이 대우한다는 말에 그리고 결혼해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말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부장님의 말씀이 틀립니다. 남자와 여자의 승진에 차별을 둔다고 하십니다. 즉,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남자 군대 3년을 인정한다는 말이지요.

다른 대졸 남자 직원들은 2년이 되면 주임을 담니다. 저도 역시 4년 대졸을 졸업했구요. 그러나 현재 전 2년이 넘었으나 승진에 대한 말조차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년 초에 승진 배치가 있으니 그때 까지 기다려 볼까도 생각했지만…….

남자와 여자의 차별… 큰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군대 문제로 남녀 차별을 둔다는 것이 사실상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A.**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성에게 명시적으로 교육·배치·승진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외에도 여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교육·배치·승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차별이 성립된다고 볼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의 승진차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부예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여성근로자에게는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성근로자에게도 승진기회는 부여하고 있으나,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3. 여성근로자에게 일정직급(위) 이상으로는 승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
4. 여성의 직급(위)을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일정 직급에의 승진시까지 남성보다 장기간 소요되게 하는 제도를 둬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5. 기타 승진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발췌 : <http://www0.incruit.com>

## 1999년도 사업실적

###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여성문제의 추이연구	7~12	정 책 개 발 부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흐름과 지자체 정책과제에 비추어 본 충남여성정책	7~12		
충남여성의 의식실태 조사	7~12		
99 충남여성통계	7~12		

### ■ 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주관부서
21세기 여성정책의 비전	'99.9.8	도청 대강당	300명	여 성 교 육 부
건강이 여성개발의 토대	'99.9.2~11.9	시·군순회	2,000명	

## 2000년도 사업실적

###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여성의 자원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1~12	정 책 개 발 부	
충남공직자 모성보호 휴가의 현실화 방안 연구	1~12		
충남여성농민 고용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연구	2~12		
충남지역 농촌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3~12		
충남여성 취업 길라잡이	9~11		핸드북
여성을 위한 직업모음	9~11		핸드북
충남지역 여대생 취업 길라잡이	9~11		핸드북

###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4.27	본원 대강당	50	정 책 개 발 부	
충남지역 여대생 취업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5.12	청양대 대강당	250		
농촌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워크샵	6.23	본원 대강당	44		
개원 1주년 기념「지방자치시대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	7.14	본원 대강당	50		세미나
충남농촌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샵	9.22	본원 대강당	36		
충남여성의 지방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샵	10.26	본원 대강당	20		

## ■ 교육사업

과 정 명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여성담당 공직자 과정	4.11	본원 대강당	31	여 성 교 육 부	
보건담당 공직자 과정	5.17	본원 대강당	28		
여성상담원 교육과정	5.26	본원 대강당	37		
道 공부원교육원 강의	6.1~6.13	공무원교육원	600		총4회
여성단체지도자 과정	6.16, 6.21, 6.29	본원 대강당	135		총3회
사회교육강사 과정	7.28	본원 대강당	44		
여성체육인 과정	8.22~8.24	천안상록유스호스텔	75		
여성정보화 과정	9.25~9.29	연기군청 정보화교육장	20		
대전시 공무원교육원 강의	9.25~9.29	대전시공무원교육원	120		총3회
여성단체실무자 과정	10.13, 10.19	본원 대강당	87		총2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과정	10.17~11.24	논산, 공주, 홍성, 부여, 연기군	122		총5회
부모교육 강사과정 강의	10.19~10.20	예산군 가야관광호텔	250		
부부농업인 교육과정	12.18~12.19	농협공주교육원	24		
중국교포와 결혼가정 문화강좌	12.19~12.20	부여청소년수련원	33		

## 2001년도 사업실적

##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사업의 유기적 연계방안 연구	1~10	정 책 개 발 부	
여고생 직업의식 강화교육프로그램의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	5~12		
충남여성 IT 전문인력 개발 방안	5~12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	5~12		
충남여성단체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1~12		
충남여성자원활동 수요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1~12		
충남여성선도보호시설 개선방안 연구	1~12		
충남보건소의 여성보건사업 현황과 과제	7~12		
여성노인인력의 복지자원화 방안 연구	1~10		
2001년 충남여성통계	7~12		
충남여성의 정치의식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1~12	여 성 교 육 부	
충남지역 여성신지식농업인 발굴사례 연구	1~12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연구	1~12		
농촌지역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7~12		



\* 개원이후 사업실적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 고
충청남도 성교육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샵	3.9	본원 대강당	70	정책개발부	
농촌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샵	3.29	본원 세미나실	67	"	
충남여성 의정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샵	4.17	본원 대강당	70	"	
성폭력 관련 담당자 워크샵	5.10	본원 대강당	98	여성교육부	
개별화 교육 워크샵	6.4	본원 대강당	200	"	
개원2주년 기념 세미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사회참여」	7.6	본원 대강당	80	정책·교육부	공동수행
여학생·학부모 진로/직업의식 강화를 위한 camp	8.6~ 8.11	본원 대강당 및 숙박시설	90 (45명 2회)	정책개발부	교육인적자원부 용역사업
전국 여성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10.22	본원 대강당	80	"	여성부 후원
여성건강증진사업 발전방향모색 워크샵	10.26	세미나실	40	"	

■ 교육사업

과 정 명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과정	2.1~2.21	천안YMCA강당	20	여 성 교 육 부	
여성경찰리더십 향상 과정	2.9	본원 대강당	55		
여성공직자 과정	3.22, 3.30	본원 대강당	75		총2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 교육	4.10~11.30	공주, 아산당진, 예산, 태안, 연기, 보령	202		총7회
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	4.18~5.10	본원 대강당	42		
충남공무원교육원 교육	4.23~5.17	충남공무원교육원	210		총7회
여성자치대학	4.25~10.31	서산, 금산, 당진, 공주	259		총4회
여성·아동복지상담원 교육	6.20	본원대강당	176		
여성창업 과정	7.9~7.13	본원대강당	50		
한부모가정 상담자원활동자 교육	7.19~7.20	본원대강당 및 숙박시설	40		
개별화교육 교원 연수	7.23~8.3	대전 서원초등학교	65		총2회
여성단체활동가 과정1기	8.31	철갑산자연휴양림	50		
여성단체활동가 과정2기	9.7	보령정심원	150		
부모교육강사 양성 과정1기	9.13~9.15	본원대강당 및 숙박시설	45		
문화유적지 안내도우미 과정	11.5	본원세미나실	21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11.8	공주대 시청각실	70		
선거자원활동자 과정	11.16	본원대강당	100		
여성정치 의식 향상을 위한 워크샵	11.16	본원대강당	100		
부모교육강사 양성 과정2기	11.29~12.1	본원 세미나실	20		
한부모가정 「청소년지원과정」	12.27~12.28	본원 대강당 및 숙박시설	71		

## 2002년도 사업실적

### ■ 워크샵&세미나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역사속의 양성평등 제도 사례 연구	2~6	정책개발부	
충남 보육사업 활성화 및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11		
충남 여성인력개발 센터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2~11		
충남 노인간병서비스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2~11		
충남여성 1366 네트워크 형성방안 연구	2~11		
충남 여성공무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연구	2~11		
충남여성 정보화 실태와 정보화능력 향상방안 연구	2~12		
충남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와 과제	2~12		
충남 기출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구	2~12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여성농업인 정책비교 연구	2~12		
충남 행정의 성주류화 실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2~12		
충남 여성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12		
여성을 위한 가족생활관련 법률안내	2~10	여성교육부	
충남지역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조사연구	2~10		
충남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실태와 대처방안	2~12		
충남지역 친환경농가의 여성농업인 지원방안 연구	2~12		
농촌지역 여성 평생학습 지원방안 모색	2~12		

### ■ 워크샵&세미나

주제	일자	장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노인간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샵	5.22	세미나실	40	정책개발부	
충남여성1366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워크샵	5.24	세미나실	40	"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대처방안 모색 세미나	5.31	대강당	57	여성교육부	
개원3주년 기념 「충남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7.23	대강당	80	정책개발부	
충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방안 모색 워크샵	9.25	세미나실	31	"	
충남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고충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10.31	홍성 홍동면사무소	42	여성교육부	

■ 교육사업

연구과제명	일자	장소	비고
2002 안남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1차교육	2.22	꽃박조직위	180
2002 안남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2차교육	3.20	꽃박조직위	190
2002 안남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3차교육	4.10	꽃박조직위	201
성교육 자원활동자 과정	5.27-5.31	대 강 당	42
한부모가정 소모임 운영을 위한 여성문화활동가과정	6.24-6.28	세 미 나 실	26
차세대여성지도자육성 여대생 캠프	7.12-7.13	대 강 당	62
공주시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를 위한 한마음 여름캠프	8.1-2(1박2일)	대 강 당	40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	8.28-8.30	세 미 나 실	31
여성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과정	8.29	공주농업기술센터	200
서산시 여성자원봉사학교	9.2-9.16	서산시청	112
여성공직자 과정 1.2.3차 교육	9.30/10.2/10.4	대강당	18/27/27
2002 실버인터넷 경진대회	예선10.7-11 본선10.18	사이버예선 청양대(본선)	646

2003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지역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 실태와 의식향상 방안 연구	'03.1~8	정 책 개 발 부	
충남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증진 방안 연구	'03.1~11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지원 방안 연구	'03.1~12		
충남 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소득증대 지원방안 연구	'03.1~12		
충남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03.1~12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정책에 관한 연구	'03.1~11		
농가도우미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03.1~12		
충남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03.1~12		
2003년 충남여성통계	'03.1~12		
충남지역 여성소모임 활동사례 연구	'03.1~12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의 전문성 향상방안 연구	'03.1~12	여 성 교 육 부	
초등학교 성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03.1~12		
충남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03.1~12		

## ■ 용역사업

용역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어린이 인성교육원 자문용역 - 미래인재양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 -	02.10~03.4	정책개발부	충청남도
아시아의 농촌과 여성의 지위 - 충남도 여성농업인의 세력화 방안 -	03.2~04.3		11구마모토현
2003 여성신직업페스티벌 연구 용역	03.6~03.8		여성부
어린이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 충남을 빛낸 사람들 외 5개 주제 -	03.7~03.12		충청남도

## ■ 교육사업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조직 활동가 교육	2.10-14	세미나실	27	
양성평등의식 향상과정	3.25/26/27	대강당	74	
여성소자본 창업과정	4.28~5.2	세미나실	27	
2003주부인터넷 경진대회	예선 4.7~11 본선 4.25	청양대학	1,238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과정	6.9~7.1	세미나실	33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 여대생 캠프	6.27~28	대강당	51	
당진군 양성평등의식 향상과정	9.16(1차), 9.23(2차)	당진군 가정 복지회관	118	
2003 실버인터넷 경진대회	9.22~9.26, 10.15	청양대학	446	
여성참여마을 만들기	9.30	천안대	207	
아산시 여성단체활동가 교육	11.3~4(1차) 11.5~6(2차)	세미나실	81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11.11~12	세미나실	30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연찬회	12.3	대강당	62	

\* 개원이후 사업실적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보색 워크샵	3. 12	천안시민회관 소강당	160	정책개발부	
충남여성농업인의 세력화 방안 보색 워크샵	6. 5	세미나실	35		
개원 4주년 기념 세미나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삶과 노인부양 분계	7. 7	대강당	200	여성교육부	
충남 재가 여성장애인 정책방향 보색 워크샵	7. 15	세미나실	26	정책개발부	
고령화 사회 여성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방안보색 워크샵	9. 25	세미나실	30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샵	10. 9	세미나실	10		
농가도우미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샵	12. 9	세미나실	10		

2004년도 사업실적

■ 워크샵&세미나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여성 통·리장 역할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2.27	천안쌍용3동 사무소	

■ 교육사업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고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3.10~12	본원 세미나실	26	
공무원 양성평등과정	4.19~23(A조) 4.26~30(B조)	본원 세미나실	81 (39명, 42명)	
2004 주부인터넷경진대회	4.19~4.23(예선) 5.7(본선)	사이버예선 청양대학(본선)	3,099	
성폭력전문상담원과정	5.24~6.4	본원 세미나실	42	
혼인귀화여성농업인 상담원 양성교육	5.27~28	대강당/ 세미나실	43	